

‘대한항공 여객기 김포공항 활주로침범’ 보도 관련

< 보도 내용(중앙일보 등, 4.20) >

◆ 대한항공여객기 착륙하다 정지선 침범.. 에어부산 추돌할 뻔

- 19일 오전 8시 무렵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김포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(KE1118) 여객기가 항공기 이동지역을 벗어나 활주로를 침범하는 사고 발생
- 같은 시간 이륙과정에 있던 에어부산 여객기와 추돌할 뻔

□ “4월 19일 오전 8시경에 발생한 활주로 침범으로 간신히 추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”는 보도와 관련하여,

- 대한항공이 도착활주로(32L)와 이륙활주로(32R)를 연결하는 유도로상의 정지선 침범이 확인되어 관제사가 즉시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를 접수하였으며,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신경 (044-201-4192)